I ♥ DOKDO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28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7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TEL:051-466-8761, FAX:051-206-8761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계간28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28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관련 성명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있거나 정치인이 잘 하면 **국민들이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나라가 힘이 없고 정치인이 잘 못 하는데 국민도 안 하면 나라는 망 한다. 식민지 역사를 배운 사람은 **위안부. 징용. 공출제도를 알 것이다.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것인가?** 나라가 잘 못 되면 최종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위안부. 징용. 공출제도가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독도로 본적을 이전하고 독도운동을 하는 독도 이상훈 입니다. 독도를 지키자고는 하면서 **독도를 어떻게 해야 지켜진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독도단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여러모로 음모를 꾸미며 국제사회에 일본 땅이라고 허위 홍보를 하는데 역대우리정부는 일본의 공격을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국민들은 축구 야구를 응원하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하면서 독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 있고 알아야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독도의 위험성을 알고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가 70% 넘어갔다.** 일본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업도 해양조사도 우리 마음 되로 못 하게 합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들은 일본명칭이나 리앙쿠르암 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독도로 표시는 되는 지도는 드뭅니다. 독도를 지킬 방법은 본지3면 서명운동을 정부가 시행하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본지 4면에 개발안처럼 개발해서 사람 살게 하면 독도 지켜집니다. 역대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못 했습니다.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일동)

후원금 주신 분

장현우	부산시진구월드강미로	20,000원
이정민	부산시 연제구연산동	10,000원
이정훈	부산시 진구 양정동	10,000원
신경미	부산시 남구 대연동	50,000원

독도는 우리 땅 지키자는 말은 모든 국민이 동의 한다

독도를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땅이라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분들 많다. 우리 땅인데 일본이 주장을 하지만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독도가 지금 현제 70% 넘어갔다고 나는 말 한다. 그러나 놀라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사실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어떻게 되었는데 70% 빼앗겨다 하는냐? 고 질문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햄독도사랑회(다음카페)를 만들었지만 별로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독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회원이 많은 카페나 밴드에 가입하여 독도 관련 글을 올린다. 회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애국심을 발휘하여 함께 노력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는 스포츠카페. 정치문제카페. 건강관리카페. 자전거동우회. 무선동우회. 등 수많은 취미생활과 건강생활. 또 정치관련 글을 올리는 사이트는 수없이 많다. 그 많은 사이트가 나름 되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카페와 밴드. 불러그. 그 외 여러 곳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독도를 지키자고 글을 올린다.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데 여당도 야당도 없다고 봅니다. 카페나 밴드도 성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고 다른 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회장

답글을 보면

(1)님의 글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 카페는 xxxx xx 카페입니다..카페와 맞는 글을 적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카페와 관련 글을 작성해 주세요.. (3)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카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5)글세요~~~??? 전 이 글 맘에 듭니다 카페와 맞는 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 잖아요~~같이 활동은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상관있는 우리나라 우리땅 이야기니까 ㅋㅋㅋ 독도와 항상 마음대로 xx 할 수 있는 날을 기대 해 봅니다 거창한 애국은 못해도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의 교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응원 합니다..... 힘내세요....

위와 같은 답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국산도 가지가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7.6.16..독도 이상훈 독도 빼앗긴 내용 독도소식지 26호1면에 상세히 기록을 했다.

日영토담당상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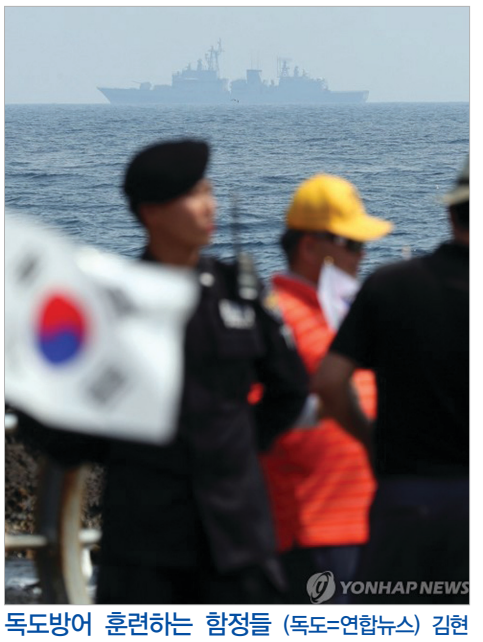
송고시간 | 2017/06/16 13:58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마쓰모토 준(松本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이 1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마쓰모토 담당상은 "외무성 · 방위성 등과 함께 일본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정확한 이해가 널리 침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독도방어훈련인 이번 훈련은 16일까지 계속되며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7척과 항공기 등이 투입된다.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2017.6.15 mtkht@yna.co.kr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16 13:58 송고



독도방어 훈련하는 함정들 (독도=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오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이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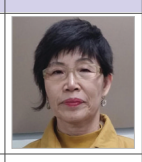
日 "독도 표기 지도 신고하라"…전세계 재외공관에 고지

입력 : 2017.06.09 19:12:37

일본 정부가 독도나 동해를 표기한 지도나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시물을 전세계 70여개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입장에 상반되는 지도, 간행물을 발견한 분은 연락해달라"며 재외공관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게재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독도, 동해 표기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비해 외무성의 대응이 둔하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자민당 내에서 나오자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동해 표기가 포함된 지도, 간행물을 발견하면 발행처에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일본 교민들에게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지난 5일 교민들에게 지도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할 것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지도와 간행물 발행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 문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자 문	홍보대사	회 장	부회장	홍보위원장
												
최정헌원장	김영구교수	황성일회장	장현섭유공	곽현옥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여사	문병준교수	임기병교수	가수 서희	독도이상훈	김영희	배우 나기찬
인천지회장	부산지회장	울산지회장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충북지회장	성남지부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김상열	박대희	정종수	한채훈	장태현사장	한명석소장	신한호	백미경	김석순회장	권정학	김필이여사	김선용회장	이광호

독일 명품 브랜드가 '독도 지도' 들어간 안경을 판매하는 사연은?

독일 명품 브랜드가 '독도 지도' 들어간 안경을 판매하는 사연은? 수정 : 2017.06.16 16:14

독일 명품 안경 브랜드가 한국의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독일 아이씨베를린이 한국인용으로 제작해 국내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다이너스티 시리즈' 안경에는 독도의 지도가 들어간다. 이 안경에 독도를 넣은 것은 32년 경력의 안경사 출신으로 다이너스티 시리즈를 디자인한 장중태(53) 지아이비 대표다.

아이씨베를린의 '다이너스티 시리즈 고려' 안경에 들어간 독도 지도/지아이비 제공

독일에서 제작한 안경은 두상이 작은 서양인에 맞춰졌으므로 동양인이 착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아이씨베를린은 한국인 두상에 맞춘 '코리안 에디션'을 만들어 판매한다. 장 대표는 아이씨베를린을 수입·판매하면서 동시에 코리안 에디션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장 대표는 약 5년 전부터 이 안경에 한국 옛 왕조와독도를 알리는 디자인을 넣기를 꿈꿔왔다. 하지만 아이씨베를린 본사에서는 그의 제안에 부담을 느껴왔다. 일본 고객들이 항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장 대표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만큼 독도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면서 아이씨베를린 본사를 설득했고, 마침내 '다이너스티 시리즈' 디자인이 채택됐다. '다이너스티 시리즈'는 신라, 가야, 백제, 발해, 고려 등 5개 안경 모델로 이뤄졌다. 각 모델 별로 안경 다리 부분에 '고려' 등 각 왕조의 영토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위치가 선명히 표시돼있다. '다이너스티 시리즈'는 2016년 3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MIDO 전시회에서 첫 공개됐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4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아이씨베를린의 '다이너스티 시리즈'를 디자인한 장중태 지아이비 대표./지아이비 제공

장 대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씨베를린 안경의 약20~30%가 다이너스티 시리즈인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아이씨베를린 전 제품들 중 가장 선호도가 높다"며 "앞으로는 한강, 아리랑, 무궁화, 백두산 등을 서브 브랜드로 네이밍해 전세계에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알린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 후원, 활동 전부다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월드컵 축구나 박근혜 탄핵처럼 2백만명 모이면 서명용지 내용이 이루어진다. 2백만명 모이자.]]2천만명이 서명하면 정부가 안 할 수 없다. 내가 13만명 받았다. 나와 같은 사람 200명이면 독도정책은 바꿀 수 있다. 서명운동 하세요 〈이상훈〉

(4면에서 이동입니다) 명기한 내용을 반영하고, 일본 영토 주변에서 일본 선박이 나포되거나 선원 사상자가 나온 사건 등도 추가하는 등 영토기술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는 독도 및 센카쿠 제도, 쿠릴 4개섬을 자국 '고유의 영토'로 명시하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한국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사회과 공민 분야에서는 북방영토와 관련해 과거 자국 선박이 러시아 측에 나포되거나 및 어업·해양자원개발 등의 제한받고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의 내용, 그리고 독도 불법점검 등으로 일본의 주권이 침해된 실태를 다루게 했다. 중학교 사회과 공민 분야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명기됐다. 앞서 문부성은 지난 3월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약 80%에 "독도는 일본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hkim@newsis.com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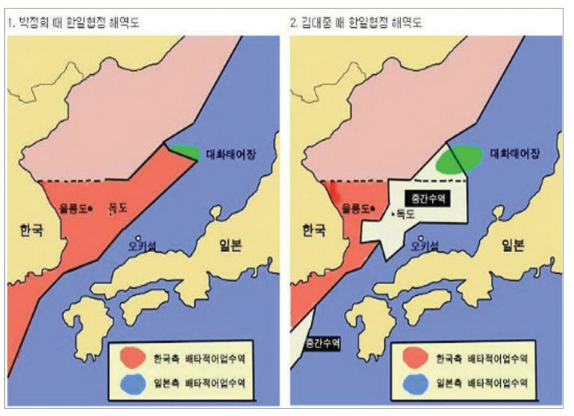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분 이름 전화)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cdoinkorea 010-6504-6510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천동부원A)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 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말하는 독도의 적은 누구인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제15조 조항 ' (협정은)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는 조항을 넣어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을 사실상 인정.

김대중이 합의한 삽질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일본은 독도 기점/한국은 울릉도 기점으로 협상 ● 한국...독도는 암석이라면서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에서 기점 설정.. /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도 인정 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한국은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 울릉도에서 200해리 /일본이 주장한 독도는 섬으로 인정한 독도에서 200해리 설정.. 중간수역에 포함. 멍청한 협상) ●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은 그대로 인정→ 이게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제공 ' 신한일어업협정 ' 에 의하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와 울릉도의 ' 모자(母子)관계의 섬 ' 이 국제법상 별개의 섬으로 취급받게 됐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돼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 속도이론 ' 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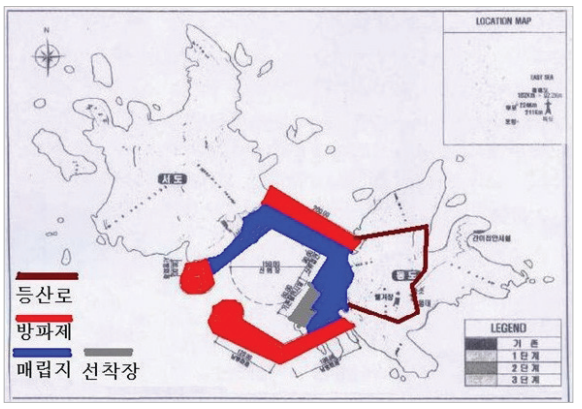
日 "독도는 일본땅"…초중학교 교과서 지침 오늘 공표

김혜경 기자 | chkim@newsis.com
등록 2017-06-21 11:00:02

【독도=뉴시스】 박태홍 기자 = 한국해양재단(이사장 이재완)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대표이사 김현호)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울릉도와 독도 탐방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과 문학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 약 700명이 지난 7일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를 탐방한다.사진은 지난 15일 한국사진작가가 경북 울릉군 독도 동도를 방문 서도의 기암절벽을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17.06.18. hipth@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는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시한다. 21일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다. 이 해설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일 뿐 아니라 교사의수업 지도 지침이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및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지면상 3면으로 이동 합니다)

독도 개발 안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님의 방파제 개발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 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 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독도소식지 28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연락처	이 메 일				사진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 도 사 수 연 합 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